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 블렌딩 와인의 창조자, 괴짜 와인너리’

메나쥬 아 트로와 실크 레드

Menage A Trois Silk Red

지역	미국 > 캘리포니아		
포도품종	피노누아 66% 쁘띠 쉬라 16% 말벡 18%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레드 루비컬러의 이 와인은, 와인메이커가 보여주고자 한 부드러운 레드 와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올렛과 베리류의 아로마와 실키한 체리 그리고 잘 익은 라즈베리류의 테이스트를 갖는 와인은 피노누아로 레드베리류의 맛을 표현하고 말벡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를, 그리고 깊이감을 주기 위해 뿌띠 쉬라를 가미하였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붉은 살 생선/ 익힌 채소/ 치즈/ 훈제, 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 디저트		



제품설명



메나쥬 아 트로와 실크 레드스는 한 모금에 부드러운 캘리포니아 레드 블렌딩 와인이 온 입을 감싸는 부드러운 맛으로 출시되지만자 올해의 주목해야 하는 와인으로 선정 된 와인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의 해안가를 여행하는 대신 캘리포니아의 해양성 기후 아래 자란 피노누아 / 뿌띠 쉬라 / 말벡을 블렌딩하여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는 기분을 들게 하고자 만들어진 와인이다.

와이너리



1981년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Folie A Deux" 와이너리는 3가지 레드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을 출시하며 즐거운 브랜드 네이밍을 부여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트린체로 Trinchero Family Estate에 편입하며 2005년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미국의 레드 블렌딩 와인과 슈퍼 프리미엄 레드 카데고리를 장악하며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브랜드의 심볼은 유명한 로르샤흐 잉크테스트에서 착안한 것으로, 역동적인 댄서의 모습을 통해 스릴넘치는 맛의 경험을 보여준다. 이 심볼의 매력있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 즐거운 경험을 메나쥬 아 트로와 한 병에 담고 있음을 상징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